

# 캄보디아와 재교전 태국 “협상 없다…군사작전 계속”

사흘째 캄보디아 민간인 6명·태국 군인 1명 사망

캄보디아 “잔혹한 침략행위…전적으로 책임져야”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은 캄보디아와 최근 다시 교전 상태에 들어간 태국이 앞으로 협상은 없다며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은 태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콘랏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지난 10월 체결한 양국의 휴전 협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차이야쁘트 두양쁘라윳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군은 무력 충돌 사흘째인 이날도 일부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디아군을 축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해군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군이 동부 끄락주 해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축출하는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자국은 여러 차례 태국의 공격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은 노골적 침략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군 당국은 밤사이 2명이 더 숨져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었고, 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고, 태국 군은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 사상자는 모두 민간이며 태국 측 사상자는 모두 군인이다.

태국은 국경 지역 5개 주에서 4만8천명을 대피시켰으며 캄보디아에서도 수십만명이 몸을 피했다.

국제사회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8일(현지시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대피한 태국 주민들이 부리람 주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은 최근 분쟁 종인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태국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 우크라, 유럽 협의 거친 수정 종전안 美와 공유

젤렌스키 “美, 타협 원하지만 이견 여전”

우크라이나가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거친 수정 종전안을 곧 미국 측과 공유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런던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정안이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영토 포기와 관련한 문제에서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측 기류는 기본적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지만 영토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타협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의 포기를 요구한 기준 종전안의 관련 내용을 우크라이나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바꾼 암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미국이 작성한 종전안을 두고 협상해왔으나, 영토 문제 등 핵심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전역에 대한 양보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병력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이날 런던 다우닝가의 영국 총리실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 4자 정상회담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종전 계획과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약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 회담에선 유럽 내 동결 자산을 활용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시작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항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곤란해지는 등 우리도 손에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일아오모리 강진 부상자 30명으로 늘어…“대피 태세 유지해야”

일본 훈슈 동북부 일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난 8일 밤 발생한 규모 7.5 강진에 따른 부상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일아오모리현 강진 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 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이날 새벽 회의에

서 부상자가 1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강진과 관련해 ‘홋카이도·신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22년 12월 도입된 이 주의 정보는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

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 달라”며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대피장소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km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

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할리우드 한국계 단체 첫 시상식…박찬욱·이병헌·매기 강 수상

미국 LA서 ‘KALH 아너스’ 개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영화인들의 대표 단체가 첫 시상식을 열어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할리우드 한국계 미국인 영화인들의 단체 KALH(Korean American Leaders In Hollywood)

d)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LA 소피텔 베벌리힐스에서 첫 ‘KALH 아너스(Honors)’ 행사

를 열고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병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KALH는 영화·TV·음악 등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리더들이 한데 모여 한인들

의 우수성을 조명하고자 2020년에 설립한 단체다.

KALH 창립자 겸 총괄 디렉터 김버 팀은 “매기 강, 이병헌, 박찬욱은 한계 없는 예술의 힘과 한국 스토리텔링의 깊이·다양성·풍부함을 보여준다”며 “처음으로 선보이는 KALH 아너스에서 이 뛰어난 청작자들을 기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박 감독과 강 감독, 이병헌은 모두 시상식에 참석해 KALH에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는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  
키  
는  
사  
민  
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